

다산포럼

시(詩)를 생각하다



최명원
성균관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몇 달 전에 모 일간지로부터 기획연구 제안을 받고 간단한 실험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기획 의도는 종이 인쇄물과 SNS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했을 경우, 어느 매체를 통해서 전달된 정보가 여섯 시간 후의 리콜 수행 능력에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험에서 종이 인쇄물로 정보를 전달했을 경우 SNS 매체로 전달했을 때보다 평균 약 40% 정도의 높은 수행 결과를 보였다.

대한 확보하기 위해 네 가지 종류의 상이한 텍스트가 선정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열 줄짜리 시(詩)로 가장 짧은 글이었다.

상이한 텍스트 종류들의 교차 비교 관점은, 한편으로는 정보를 담은 텍스트 길이의 차이와,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픽 위주의 정보를 글로 기억하는 것과 시(詩)가 담고 있는 글의 내용을 이미지화하여 기억하는 것의 차이였다.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텍스트는 시인 정승화님의 '부활'이라는 시였다. 이 시를 선택하게 된 것은 정승화님의 시가 이미지화하기에 좋은 시라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였다. SNS로 시를 읽은 학생들은 종이 인쇄물로 시를 읽은 집단과의 비교에서는 물론, 다른 텍스트들과의 비교에서도 가장 낮은 수행 능력을 보였다. 단 열 줄에 불과한 짧은 글이었음에도... 전체적인 실험 결과는 SNS를 매체로 텍스트를 제공했을 경우, 학생들이 텍스트들을 읽은 것(reading)이 아니라 그냥 본 것(seeing)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런데 왜 시(詩)인가? 인간은 언제부터인가 '언어'를 가지게 되었다. 언어를 가지고 만물에 이름을 붙이고, 이름을 불러 주면서 나와서 관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소통의 도구로 삼았다. 비단 이름뿐만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생각과 감정도 표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뒤집어 보면 내가 말하는 그 '언어' 안에 말로 된 모든 것이 갇혀 버리는 결과이기도 했다. 내가 '아프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그냥 아프 것이다. 내가 '빨갳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그냥 빨간 것이면 됐다. 아픔 하나하나가 품고 있는 천차만별의 그 세세한 항변들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저 '아픈 것'일 뿐이고, 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수백 가지의 빨강들이 그저 '빨간 것'이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시는 아니다. 침묵과 함축 사이에서 언어가 문방 가져가 채워 버릴 그 존재의 틈새를 열어 주는 것이다. 시의 빨강은 그냥 빨강이 아니다. 침묵에서, 시어(詩語)가 자리를 내어 준 그 함축의 공간

들에서 술한 사연을 가진 빨강들이 얼굴을 내밀고 있다. 시의 아픔 안에는 차마 말이 되지 못한 저마다의 더한 아픔들이 숨죽여 울고 있다. 그래서 시다.

우리는 언어를 가지면서 우리 생각들을 그 안에 꾸겨 넣는 것으로 존재의 의미를 한정하고 구속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시는 그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의 항변이다. 특 던져진 것 같은 외마디 시어에서 수백 가지 상상과 생각을 그려 넣어 공감할 수 있는 여백을 누리는 자유. 그래서 시다.

누군가 그랬다. 인간의 언어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작업은 문학이며, 시는 문학의 꽃이라고. 실험 결과가 말해 주듯 SNS 매체는 시가 열어 놓은 여백의 자리에 생각을 그려 넣을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세돌 9단을 이긴 인공지능도 시를 쓸 수는 있을 것이지만 그 시가 '하늘을 우리러 한 점 뿌리깊음이 없기를' 바라던 시인 동주의 마음일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시(詩)다.

NGO 칼럼

소소한 것들이 갖는 힘



박수민
광주경실련 기획부장

소소하다. 내가 좋아하는 표현 중 하나이다. 사전에서는 '소소하다'를 '작고 대수롭지 아니하다'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 삶 속에서 소소한 것들은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고 중요함을 갖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가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는 이 소소한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불안정해진다. 삶은 소소한 것들이 쌓여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출근하는 과정 중 마주하는 것들은 참 소소하다. 아침 산책 중인 마을 어르신들과 강아지, 아침잠에서 깨지 못하고 햇빛을 피해 그늘에 누워있는 고양이, 이른 아침부터 문을 연 작은 자동차 엔진가게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기와 소음 나는 이 엔진가게를 가득 덮은 검은 그늘음을 볼 때마다 뭔가 정의내리지 못하겠지만 뜨거운 열정과 슬픔을 느낀다. 매일 가게 앞을 쓸고 있는 어주머니, 머리가 하얗게 센 아버지와 중년의 아들이 운영하는 한약방 특히 이 한약방의 아버지와 아들 모습이 참 좋다. 매일 창문과 문을 활짝 열고 각자 무엇인가를 하고 계신다. 이곳을 지나 먼지를 털어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한약방 아저씨의 모습을 마주하며 걷다 보면 사무실에 도착한다.

골목 곳곳의 오래된 집을 구경하는 것도 소소한 재미다. 오래된 여인숙 건물을 살펴보면 벽을 타고 오른 덩굴의 푸름을 보는 것도 좋다. '이 여인숙 건물을 게스트하우스나 커피숍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면 어떨까?'하는 상상을 하는 것도 즐겁다. 그런데 이러한 소소한 것들을 이제 볼 수 없을 것 같다. 이 동네 곳곳에 '재개발'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붙어있다. 빨간 글씨로 공과라고 써어진

곳도 적지 않다.

이제 이곳에는 높은 아파트가 들어올 것이다. 사각형의 높은 건물 사이사이에 는 반듯하게 도로가 다시 놓여 질 것이고 대형 마트와 프랜차이즈 점포들이 들어 올 것이다. 원주민들은 이사를 갈 것이고 새로운 주민들이 이사를 올 것이다. 거리는 말씀해주시겠지만 거리 곳곳을 메우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라질 것이다. 대를 이어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한약방도 작은 한약방도 여인숙도 신축 건물의 높은 임대료 속에 버티지 못하고 문힐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재개발 움직임이 내가 출퇴근하는 이 동네, 이 거리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광주 곳곳에서 너무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광주경실련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을 모시고 강연회를 연 적이 있다. 그 한 많은 이야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도시지는 기억의 집합이다. 도시는 시민들을 담는 그릇으로, 그릇이 갈아진다는 것은 시민들의 삶도 똑같이 복제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였다. 광주를 가도 서울을 가도 어느 도시를 가도 똑같은 브랜드의 아파트와 규격화된 체인점 대형 마

트로 만들어진 도시는 매력적 없다.

'그렇다면 현재 광주는?'이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하기 참 어렵다. 문화수도 광주라고 하지만 다양한 문화와 변화가 이뤄지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떠올라지지 않는다.

명품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노점상인들을 몰아내고 대규모 특급호텔을 유지하는 지역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면서 목을 맨다. 중소상인들이 지역 상권이 무너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그저 특급호텔 유지에 있어 불편한 걸림돌로 생각하는 듯하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살고 있는 이들이 말하는 목소리에는 귀를 닫는다. 노점상인들의 눈물도 중소상인들의 절규도 소소한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 도시를 만드는 것이 이 소소한 것들의 힘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철거는 쉽다 저렴한 해결책이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현명한 해법은 아니다. 오래된 것들의 가치는 어떠한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최근 한 지인이 아파트 건립을 위해 철거가 진행 중인 현장을 지나면서 한 말로 이 글을 마무리하려한다. "아, 슬프다. 추억이 다 사라져 버렸네."

기고

추석맛이 분주한 광주영락공원



박문기
광주도시공사 경영본부장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은 다가온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웃은 시절 을 때처럼 음식은 한가위처럼"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추석은 연중 최고 명절이다.

또 추석은 "5월 농부 8월 신선"이라는 말처럼, 한 해 동안 땀 흘려 일한 노고를 농사가 다 마무리 되어가는 8월에 넉넉하고 편안하게 신선처럼 지낼 수 있다는 뜻으로도 전해지며, 더없이 편안하고 좋은 날이기도 하다.

추석 전에는 조상의 산소를 찾아 별초를 하고, 추석날에는 송편과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하여 조상을 기리는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한다. 이웃끼리 모여 씨름, 줄다리기, 소싸움 같은 갖가지 민속놀이도 하고 한 해 동안의 노고를 서로 위로하면서 더없는 풍요로움을 만끽한다.

영락공원에서 추석을 맞이하는 데 있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묘역별초이다. 영락공원과 망월묘지를 합쳐 일반 묘가 5만7000여기가 넘고, 면적만 해도 95만㎡를 넘는다. 봄부터 여름 동안 무성히도 자란 잡초를 베는데, 20여명이 일해야 하고 그 기간만 해도 25일이나 걸릴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 때문에 별초를 8월 중순에 실시하여 추석 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잔디는 양력 4월부터 씩이 트고, 8월까지 성장하므로, 성장이 완료된 이후, 추석 전에 별초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간혹 여름철 성묘객 중 별초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불편해 죄송한 마음이나 사실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5월에서 8월 사이 잔디 성장기간에 별초를 하면 더 할 수는 있으나 며칠 못 가서 잡초는 금세 자랄 뿐만 아니라, 별초에 소요되는 추가 관리비용은 시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영락공원에서는 방문하지 못하는 성묘객을 위해 모바일 사이버 추모관을 운영하고 있다. 모바일 사이버 추모관은 핸드폰에서 영락공원을 검색하여 사이버 추모관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고인을 추모할 수 있다.

추모관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을 활용하여 문자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다. 012-2012-8899번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전광판에 문구를 넣을 수 있다. 그 외 성묘객 편의를 위해 참배시간 연장, 교통편의를 위한 버스노선 증설, 추석 당일 화장업무 중단 등 대책을 세우고, 이어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하여 성묘객들이 불편함이 없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영락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망월묘지공원에서는 매장분묘 280기를 조성하여 광주시민들에게 공공하고자 접수를 받고 있으며, 또 8위용 가족 봉안평장분묘를 광주시민 뿐만 아니라 광주근교나주, 담양, 장승, 화순, 함평 등 시, 군, 구 주민들에게 분양하고 있다. 망월묘지공원(062-266-8170)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추석, 광주영락공원을 찾는 성묘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성묘를 마치고 추석 연휴를 행복하게 보내 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이번 개각 호남 출신 인사 중용 마지막 기회다

정부의 개각이 이번 주 중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실상 마지막 인사가 될 이번 개각을 앞두고 호남 출신 중용을 비롯한 당평인사의 목소리가 높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평을 중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명박정부 때부터 영남에 치중된 인사-예산 때문에 소외가 심각했던 호남을 배려해 균형 발전과 국민 화합을 꾀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임기 반환점을 돈 지금 18개 부처 가운데 호남 출신 각료는 김현웅 법무, 이기권 노동부장관뿐이고 청와대 수석급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최대 일곱 자리까지 교체가 예상되는 이번만큼은 호남 인사를 등용해 약속을 지키라는 주문이 많다. 이 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취임 일성으로 박 대통령에게 당평 인사를 요청한 바 있다. 김무성 전 대표까지 "호남 출신 장관이 대거 임명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은 그만큼 지금까지의 정부 인사

가 편향됐음을 반증한다.

개각 물망에 오르는 부처별 호남 인사로는 먼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겸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을 들 수 있다. 광주 출신으로 미래부 2차관을 역임한 창조경제 전문가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는 완도 출신 정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거론된다. 농식품부 2차관을 지낸 정통 관료로 여당 불모지인 광주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이들 말고도 마음만 먹는다면 능력 있는 호남 인사들을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이번 개각에서 빠뜨리지 않아 할 사안이 있다. 바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과 관련 누차 문제를 일으킨 바 있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차관급)의 경질이다. 그동안 세 번이나 해임 결의안이 제출된 만큼 이번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이번 개각을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한번 현장 민심과 소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 '호화 오찬' 서민 고통 안중에도 없나

새누리당 친박 세력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이정현 대표의 당선을 누구보다도 기쁘게 생각했을 것이다. 친선 참패로 박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권력누수)을 맞고 친박계는 지리멸렬해질 위기에 처했던 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였을까, 엇그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의 청와대 오찬 메뉴가 초호화판이었다고 한다. 송로버섯, 삭신(생어지느러미) 찜, 바닷가재, 캐비어(철갑상어알을 소금에 절인 것) 셀라드 등 일반 서민들은 구경조차 하기 힘든 고급 음식이 나왔다.

특히 송로버섯은 포와그리(겨울간 요리), 캐비어(철갑상어 알)와 함께 세계 3대 진미로 손꼽히는 음식으로 '땅에서 나는 다이아몬드'라는 별칭을 지녔 정도로 비싼 식재료다. 선거에서 이긴 정권이 즐겨취하는 것이야 이해 못 할 바 아니지만 이들이 동서양의 산해진미로 오찬을 즐겼다는 것은 얼마나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인지 알 수 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지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시사평론가 유창선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가 본 것은, 민심의 강 건너에 있는 궁전의 식탁이었다"고 비판했다. 전우용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교수도 "초호화 메뉴를 먹으면서 서민 가정 전기료 6천 원 깎아 주는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했다는 거군요"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논란이 인 후 청와대는 "송로버섯, 캐비어 관련 메뉴가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음식개각도 조금 쓰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오찬에 쓰인 송로버섯이 얼마짜리인지 알 수는 없지만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그들이 호화 요리를 즐기고 있는 시간에도 서민들은 부채로 맘을 식히고 있었을 터이다.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 그들은 고통을 분담하는 시늉이라도 할 수는 없는 것일까.

Advertisement for Kwangju Ilbo (光州日報) featuring '無等鼓' and '古詩源' section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advertising and subscription services.